

발트3국 한국학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제안*

서진석**

목 차

- I. 들어가기
- II. 발트지역 한국학 및 아시아 지역 연구사
- III. 발트지역 한국학 연구와 교육의 특수성
- IV. 발트3국에서 한국학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전망
- V. 고찰해 봐야할 점
- VI. ‘바람아, 불어라’- 결론을 대신하여

I 들어가기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렇게 세 나라는 흔히 발트3국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최근 들어 각종 언론매체에서 이 지역을 소개하는 일이 잦아지고 교환학생이나 여행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국인 열 명 중 여덟 명은 국가명을 들었을 때 고개를 갸우뚱하게

* 이 논문은 2018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해외 한국학 씨앗형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5-INC-2230001).

** 徐振錫, 라트비아대학교 아시아학부 교수 겸 한국학연구소 소장

DOI URL : <http://dx.doi.org/10.17792/kcs.2018.35..333>

되는, 여전히 생소하고 잘 모르는 지역이다.

사실 발트3국을 모르는 것은 한국인만은 아니다. 필자는 한국학 관련 업무로 케냐 나이로비 대학교를 종종 방문하곤 하는데 나이로비 조모 케냐타 국제공항에서 탑승수속을 할 때마다 직원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라트비아라는 나라를 설명하는 데 꽤 애를 먹는다. 최근에는 나이로비에서 네덜란드 KLM 항공을 타고 암스테르담을 경유하여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로 가는 여정을 선택했는데, KLM 항공직원이 내 표를 보더니 라트비아가 네덜란드에 있는 도시 이름이냐고 물어서 적잖이 당황한 적이 있었다. 이런 낮은 인지도는 발트3국이 모두 비슷한 상황이다. 소련에서 독립한 지가 불과 30년이 채 안되었고, 중세시대 나름 강성했던 제국을 건설한 바 있었던 리투아니아¹⁾를 제외하곤 국가를 최초로 건설한 것도 1918년으로, 2018년에서야 겨우 건국 100주년이 되는 아주 젊은 국가들인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생소한 국가들에서도 약 십 년이 되는 짧은 기간 동안 한국어 교육과 한국학 연구가 봄을 이루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발트3국은 고딕양식과 바로크 양식의 아름다운 성당으로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을 매혹시키는 나라들이긴 하지만, 사실 역사상 유럽 전체에서 기독교화가 가장 늦게 진행된 국가들이다. 발트3국이 유럽 전체에서 한국학의 물결이 가장 늦게 전해진 국가라는 점은 뭔가 맥락이 비슷해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다.

오랜 기간 동안 소련 공화국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당시에는 북한과의 학술적 교류가 많았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막상 소련 전체에서도 꽤 변방에 위치하다보니 북한에서도 그리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등 구 공산권 국가들에서 북한과의 교류를 통한 한국 관련 학술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질 당시에도 발트3국은 여전히

1) 국가로서의 리투아니아라는 명칭은 1009년에 독일에서 기록된 역사서에 등장할 정도로 역사가 깊다.

북한, 혹은 한국학이 미지의 분야였던 곳이다. 이기영 같은 북한의 유명작가들의 작품이 간혹 발트3국 현지어로 출판되긴 하였으나 그것은 자체적인 연구나 관심의 결과물이 아닌 소련 당국의 정책과 연관된 문화정책의 일환이었고 대부분 러시아어를 통해 중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언어적 교류가 있었을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당시 조선어(!) 보급을 위해서 간단한 회화집이 출판된 적이 있었으나 모두 김일성 정권의 정통성을 홍보하고 김씨 일가를 찬양하는 표현을 가르치는 내용들이 주를 이뤘었다.

21세기에 들어 발트3국과 한국이 국제적으로 차지하는 위치가 올라가고 인터넷을 통한 한국의 대중문화가 이곳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학은 여기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새로운 ‘핫한’ 학술분야로 떠올랐다. 매년 늘어가는 한국학 전공 개설 대학교와 한국어 학습자들의 수를 볼 때, 충분히 격세지감을 느낄 만하지만 사실 숫자적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다양한 변수들과 환경을 고려해보면 여전히 해결이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학의 불모지와도 같던 발트3국에서 한국학 교육과 연구가 더 발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반론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올바른 방향 정립과 방법론 설정은 장기적인 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더 괄목한 성과를 내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라 볼 수 있다. 여기서 나는 발트3국에서의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변방국가’에서 한국학 교육과 연구의 올바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발트지역 한국학 및 아시아 지역 연구사

1. 발트 지역 내 초기 한국 관련 기록

한국인들은 아주 고집이 세며 어떤 새로운 사명이나 연구에도 귀를 기울이

는 법이 없다. 아직도 한국인들은 여러 가지 악령들을 신봉하며 문명화를 거부하고 있다. 2천만의 한국인들 중에서 백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다른 한국인들은 난장이처럼 키가 작은 황인종들이다. 한반도의 해안에는 높은 산악지대가 형성되어있어서 바다를 헤엄쳐서 그 땅에 들어온다 해도 산을 넘기가 아주 어려우며, 게다가 현지인들은 산을 건너온 외국인들을 보기만 하면 목을 자른다. (.....)

위 내용은 1930년도에 리투아니아에서 발간된 ‘디에나(diena)’라는 신문에 기록된 한국 관련 르포기사이다. 1930년 8월 24일자에 보도된 ‘은자의 민족’이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정확히 어느 기자가 어떤 경위로 한국에 가게 되었는지 등에 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20세기 초반 당시 유럽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이란 나라와 한국인들의 이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작성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아 리투아니아의 젊은이들이 이 미개하고 약한 나라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은 짐작도 못했을 것이다.

발트3국의 운명과 흡사하게도 한국은 일제강점기 동안 세계사 지도에서 사라져 버렸고, 한국전쟁 이후의 남북분단, 냉전, 반공주의 등의 영향으로 소련과 공산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교역과 연구가 극히 제한되면서 소련의 일부였던 발트3국과 한국 간의 ‘표면적이고 인식 가능한 실제적’ 교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발트지역과 한국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순간에도 이미 많은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고종황제 시절 서울에서 근무한 카를 베베르 주 조선 러시아 공사이다. 카를 베베르는 고종과의 개인적인 친구이기도 했지만, 명성황후 시해 직후 아관파천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사실 그는 러시아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출생지는 발트해에 인접한 리에파야(Liepāja)라는 라트비아의 도시로 발트지역 문화권에서 아주 중요

한 지역인 곳이다. 사실 그가 생존했을 당시, 라트비아를 비롯한 발트 전역은 제정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므로 민족은 있으나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이다.

카를 베베르처럼 발트 민족의 후예로 태어났으나 국가가 없었다는 이유로 러시아인으로 알려진 관련 인물들은 상당히 많다. 그 중에서도 한국과 극동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학자들이 적잖이 있었으며 대부분 러시아 연구사의 업적으로 기록이 되어있지만 사실 그 중 상당수는 발트연구자들의 업적으로 재인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²⁾ 라트비아인으로서는 카를 베베르의 삶과 업적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으나, 만약 후속연구가 이어진다면 발트지역과 한국 간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지도 모른다.

그 외 일부 탐험가들의 한국을 방문하여 여행기 형식의 기록을 남긴 것들도 초기 한국연구의 편린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들이다. 대표적인 예는 리투아니아의 출신의 여행가 마타스 샬쥬스(Matās Šalčius)다. 카우나스(Kaunas)라고 하는 리투아니아의 두 번째 도시에서 태어난 그는 1930년대 아시아, 아프리카를 여행한 후 ‘40개국 방문기 (Svečiuose pas 40 tautų)’라는 책을 출판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 당시만 해도 꽤 반응이 폭발적이라 이듬해 발간된 2쇄본은 3천 본이나 인쇄되었을 정도다. 그 책에서 샬쥬스는 약 3페이지에 걸쳐 ‘비극적인 아침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기술했는데, 일본의 지배하에 피폐하게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있다.

서울은 제일 큰 도시이다. 만(灣)에서 멀리 자리 잡은 꽤 아름다운 도시이다. 조선의 고대 도시이기도 하다. 중요한 장소들은 모두 개조되었으나 중국

2) 러시아 민요로 알려져 있던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가 알고 보면 라트비아 노래였다는 것도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사실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이다.

스타일들의 건물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다. 우아한 왕궁들은 일본인들이 점령하고 있었다. 일본인 경찰들이 근무하고 있었고, 일본어가 사용되고 있었으며 일본상점도 있어 주요 대로에는 일본인들만 살았다. 한국인들은 시내 외곽에서만 살 수 있었다.³⁾

이 책에 의하면 저자는 조선인들과 직접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였으나 중국 국경에서부터 서울까지 줄곧 그를 따라다니는 정체불명의 일본인의 방해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이 책에 수록된 다른 나라들의 정보에 비해서 한국에 관한 분량은 심히 적다. 이 외에도 라트비아의 민속학자인 페테리스 슈미츠(Pēteris Šmits, 1869-1938) 역시 극동 지역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오랜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국을 수차례 방문하여 연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기록은 현재 남아있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는 힘들다. 그 후 2차 대전이 끝나고 소련에 재편입된 이후에도 북한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나 학술교류 활동은 정말 드물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1991년 발트3국이 소련에서 독립한 직후, 지역 내 주요 대학교에서는 일본어, 중국어, 터키어, 힌디어 등 유럽 내 전통적인 연구대상이었던 국가들의 지역학과 언어연구, 관련강좌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독립 이전에도 동양문학, 철학, 종교 등에 대한 연구 차원에서 중국철학, 일본문학, 인도철학, 불교 등의 연구가 적지 않게 진행되었으나 한국어에 관련된 연구와 강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⁴⁾

독립 직후부터 한류의 발전 이전까지 러시아에서 한국학을 공부하고 발트3국으로 귀화한 연구자들, 단기 체류 선교사들을 통해 간헐적으로 한국어

3) Šalčius, M, *Svečiosėpas 40 tautų*, Vaga: Vilnius, 1934/1989. p.560.

4) 발트3국에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학으로는 1579년 설립된 빌뉴스 대학교(Vilnius University, 리투아니아), 1632년 설립된 타르투 대학교(University of Tartu, 에스토니아)가 있으며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에 존재하는 라트비아 대학교(University of Latvia)는 2019년 개교 100주년을 맞는다.

강좌가 진행되곤 했으나 학습방향, 교육목적, 교육방법 등이 정해지지 못하고 비전문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장기적 차원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발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 한류의 저변확대와 발트3국, 한국 대학교 간 학생교환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드라마, 한국가요 등을 중심으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발트3국에 한국 공관이 전무하고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여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독립적으로 한국어를 습득한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고 한국경제의 급속한 발전,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변화, 남북 간 대치정세 등으로 한국어와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발트 지역 내 대학교에서도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과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였으나 한국으로 유학을 떠난 유능한 현지 학생들이 발트3국으로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두뇌 유출 현상으로 인해 강사, 교수진 마련에 난항을 겪어야만 했다.

열악한 경제 상황에서 현지 대학교의 자체적이고 독자적 투자를 통한 한국학 과정설립은 상당히 힘들었으므로 한국정부를 통한 파견교수를 희망하는 대학교들이 점차 늘어났다. 그러나 영어나 슬라브어와는 다른 체계의 언어를 사용하는 발트3국 언어를 이해하는 한국인들이 없다는 점, 타 유럽권과 다른 정치적, 사회적 배경의 발트3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극히 드물다는 점. 그리고 발트3국 자체에 대한 관심 부족과 몰이해로 인해 많은 한국인들이 진출을 꺼리며 한국기업과 공관들 역시 발트3국 대학교들로부터의 한국학 지원 협조 요청을 등한시했다는 점 등의 여러 이유로 한국학 교육과 연구는 일본, 중국, 인도 등 인접지역들에 비해 뒤쳐지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21세기에 갓 진입하면서 다행스럽게도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2. 발트 주요 대학교에서의 한국학 관련 전공 및 강의 상황

1) 리투아니아

발트3국에서 최초로 한국 관련 전공이 공식적으로 생긴 곳은 리투아니아 제2의 도시 카우나스(Kaunas) 소재 비타우타스 마그누스 대학교(Vytautas Magnus University)이다. 이 대학교는 수도 빌뉴스에 위치한 빌뉴스대학교보다는 역사적 전통이 짧은 편이나 세계 1차 대전 종전 직후 폴란드에 의해 빌뉴스 지역을 점령당한 직후 임시수도가 된 카우나스에 설립된 대학교로, 인문, 역사학 관련으로는 빌뉴스대학교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명문대학이다. 그 대학교의 정치학부는 2007년에 동아시아지역학 대학원 석사과정에 한국을 포함시킬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에 발트3국 현지에서 오래 체류하고 수학해 온 필자가 정식 강사 및 연구원으로 임용되어 한국어 강의, 한국학 관련 연구, 한국학 보급활동에 투입되었다. 그리고 2012년에 학부과정으로 인문학부에 동아시아문화언어학과가 개설된 이후 현재까지 현지강사들과 파견교수들을 통해 한국학 과정이 진행되어오고 있다. 2016년에는 대학원 과정이 정치학부에서 인문학부로 통합 이전되었으나, 여전히 내용은 언어와 문화가 아닌 지역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빌뉴스대학교에는 정식 과정은 없이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 강사들을 채용해 2008년부터 교양수업으로 수업이 진행해오고 있으며, 빌뉴스에 소재한 미콜라스 로메리스 대학교(Mykolas Romeris University)에는 2016년 발트지역 최초의 세종학당이 설립되었다. 2018년 가을에는 비타우타스 마그누스 대학교에도 리투아니아에서 두 번째 세종학당이 활동을 시작해 리투아니아는 발트지역에서 유일하게 세종학당을 두 도시에서 운영하는 국가가 되었다.

2) 라트비아

라트비아대학교는 발트3국 중 가장 조직적으로 한국학 관련 연구와 교육을 동시에 진행하는 곳 중 한 곳이다. 독립 직후인 90년대 말 러시아 상트

페테르스부르그에서 동양학을 전공한 학자에 의해 간헐적으로 한국어 과정이 열린 적이 있었으나 강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오래 가지는 못했다. 그 후 라트비아 대학교는 정부 간의 협력 결과로 2014년부터 국제교류재단을 통해 파견교수를 지원받게 되었다(공교롭게 이때도 리투아니아에 비타우타스 마그누스 대학교에서 근무를 마친 본 필자가 파견교수자격으로 라트비아에 부임을 하게 된다). 라트비아대학교는 2015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 씨앗형 사업 대상 대학교로 선정되어 발트3국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2016년에는 한국학 연구소도 설립되어 인접 국가들을 아우르는 한국학 교육과 연구의 허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현재는 대학원 과정도 운영 중에 있어 한국어 교육과 한국학 연구의 중추를 담당할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다. 그리고 2016년에는 리가 공과대학(Riga Technical University)에 세종학당이 설립되었고, 2017년에는 문화아카데미(Academy of Culture)라는 소규모 대학교에서도 한국어가 전공수업으로 열리고 있다.

3) 에스토니아

1632년 설립되어 북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의 타르투대학교는 당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본 필자에 의해 2005년 한국어 강좌가 최초로 공식 개설되었다. 현재에는 국제교류재단 파견교수가 부임하여 한국어와 관련 과목을 진행해오고 있는 중이다. 수도 탈린 공과대학교에는 세종학당이 설립되어 한국어 강좌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정식 전공과목은 없다.

전반적으로 볼 때 체코, 폴란드, 불가리아 등 한국학 연구의 전통이 깊은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발트3국은 아직 한국학 연구의 방향성을 정립하거나 구체적인 특정 연구 업적을 내놓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는 한국학 교육과 연구의 역사가 짧다는 점에서도 기인하겠으나 국가 간, 대학 간 네트워크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학자 및 교수들 간에 교류가 미비하다는 점도 있다고 보아, 2018년에는 발트지역한국학회(Baltic Association of Korean Studies)가 조직되었으며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있는 미콜라스 로메리스 대학

교 세종학당장이 최초 회장으로 선출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2019년 봄부터 학술대회, 학회지 발간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Ⅲ. 발트지역 한국학 연구와 교육의 특수성

1. 한국의 대중문화에서 비롯된 한국어 학습 - 취업보다는 취미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류의 영향력이 발트 현지 학생들로 하여금 한국 관련 전공을 선택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1세기로 진입한 직후 한류는 일본 관련 전공자들이 일본 내 매체와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대중 문화를 접하게 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일반학생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발트 지역과 한국 내 대학교들 간의 학생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일반 시민들이나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급속도로 전파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초기 한국 관련 전공자들의 한국어를 공부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한국 드라마와 대중가요였으며, 대학교에서 한국어가 정식과목으로 자리를 잡자마자 한국문화 관련 동아리가 창설되는 점으로 보아 대중문화의 인기도와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는 뗄 수가 없는 관계라 말할 수 있다. 한류 관련 동아리는 리투아니아의 비타우타스 마그누스 대학교에 2010년 한국문화동아리 한류클럽을 선두로 하여 이듬해 수도 빌뉴스대학교에 한-빌뉴스, 2014년 라트비아대학교의 비빔클럽, 2015년 타르투대학교에 한국문화클럽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방식을 넓혀가고 있다. 초기에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만으로 한국 관련 전공을 선택했던 학생들도 학습을 이어가면서 점차 역사, 문화, 문학 등으로 관심을 넓혀가는 추세이다.

한국대기업들의 활동이 한국관련전공을 선택하는 데 큰 이마지를 하지 못했다는 점은 염두에 둘만 하다. 한국 유명 국제기업들이 아직 발트지역으로 대규모로 진출하지 않았기도 했지만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교육이

직접적으로 취업으로 연계되지 않았다는 점은 발트3국에서 보이는 특별한 현상이기도 하다. 이는 발트지역에서 언어를 전공으로 선택하는 층에서 비교적 경제적 부담이 적은 여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전공과 취업이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분야에는 남녀 성비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언어 분야에서의 전공자들은 여성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2. 한국학에 대한 현지 전문연구가 미비

한국 관련 강좌와 전공과목이 설립된 지 약 10년이 되었지만 각 지역을 대표할 만한 한국학 연구자들이 아직 배출되지 않은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관심이 취미적 분야에 집중되어있음을 반증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한국학 연구와 교육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부족함을 증명하기도 한다.

사실 10년의 기간 동안 발트 현지에서 한국학 교육과 전공 설치에 관한 작업은 거의 한국인 교수 한 명에 의해서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현지 네트워크보다는 현지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경험에 의존하는 현상이 상당히 심하다. 그러므로 현지 언어와 상황을 잘 이해하고 한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특출한 현지 전문가가 심히 부족하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현지 학생들 사이에 전문연구가로 육성할 인재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발트 지역은 전반적으로 유능한 인재들이 고국을 떠나 해외에서 자리를 잡는 두뇌유출 현상이 심각하며, 이 역시 한국 관련 전공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정부장학금으로 한국에서 유학을 마친 유능한 현지 학생들이 많이 있음에도 대부분 고국에 돌아와 연구 및 교육활동을 이어가기를 거부하고 있고 현지 정부나 대학교 차원에서도 인재 육성을 위한 투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현지에서는 현지인 출신의 능력

있는 인재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한국으로부터의 지원과 협조에 더 의존을 하는 경향이 높다. 폴란드, 체코, 러시아 등 한국학 전통이 오래된 지역에 비교해 볼 때 아직 발트3국은 뚜렷한 연구 분야와 방향이 정립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것도 고려해 볼 사항이다. 현재 한국학 관련 학술대회와 학술활동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므로 장래 연구가들에게 미래에 대한 동기부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면 조만간 훌륭한 한국학 연구가의 출현을 기대해볼 수도 있겠다.

IV. 발트3국에서 한국학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전망

이런 여러 가지 특별한 조건 하에서 운영되는 한국학을 실질적으로 더 넓게 보급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며 그에 대한 방도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현지 학생들은 한국학을 통해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1. 경제적 측면

경제적 측면을 말하자면 우선 투자나 취업 같은 것을 떠올리기 쉬우나 한국과의 교역이 그리 오래 되지 않았고 물류, 교통 환경이 그리 좋지 않은 발트3국은 전반적으로도 국제기업의 투자가 많지 않아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여기서는 한국기업 취업이나 이민 같은, 기존의 경제적 개념을 벗어난 이해를 필요로 한다.

현재 발트3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 대한민국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던 당시의 상황과 상당히 흡사하여 이런 맥락에서 한국학의 연구는 발트지역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소개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1) 콘텐츠 개발을 통한 현지관심 증대, 그를 통한 활동과 수익창출

한국의 대중문화인 한류에 대한 관심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들어 볼 때, 이는 발트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도 본다. 불과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힌디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등과 비교해서 관심이 극히 미비했던 한국어가 갑자기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좌 중 하나가 되었다는 점을 따져본다면, 현재로 과거의 한국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발트지역 언어 역시 특정한 계기를 통해서 관심이 급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지니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도유럽어족의 가장 고대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리투아니아어, 라트비아어와 한국어와 계통적으로 상당히 흡사한 에스토니아어는 아직 한국 학술계에서 많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으나 그 학술적 가치는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기독교화가 가장 늦게 진행된 곳이니 만큼 기존 유럽 국가들에서는 많이 사라진 구비문학과 설화문학 등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한국에서처럼 콘텐츠 개발에 정진을 하면 발트지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영화 같은 영상산업분야에서 필요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한국과 협력하는 활동을 진행하는 데 창조적 성향을 가진 한국어 전공자들이 참여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발트지역 문화를 잘 이해하는 현지 전문가들 간의 협력이 필수적인 것이다.

그리고 자연자원이 풍부하지 않고 대규모 공업단지가 없는 발트지역은 한국처럼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한 경제 발전의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콘텐츠 개발을 근거로 한 수출 활성화는 경제적 이익도 충분히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2) 관광시장 확대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

특히 여행애호가들 사이에서 발트3국은 떠오르는 관광지로서 그 명성이 점차 올라가는 중이다. 그러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가이드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한국인들의 취향을 꿰뚫는 관광상품 개발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들의 양성은 관광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지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상품의 개발이 어려운 점은 비단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가이드가 없다는 점 이외에도, 현지 문화와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한국인에게 걸맞은 만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현지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상황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발트에 대한 현지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러시아어, 영어 등 제3의 언어를 통해 현지 정보를 습득하고 익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발트지역과 역사적, 사회적으로 복잡한 관계에 있는 러시아어 정보의 경우 현지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주지 못하거나 러시아인들의 입장에서 잘못 알려져 있는 사실들을 한국인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기 십상이다. 이런 차원에서 관광시장개발을 위한 작업에 한국어 전공자들이 참여한다면, 한국인들의 취향에 맞는 적절한 관광상품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어 두 지역 간의 이해를 확대하고 관계를 재정비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2. 심리적 측면

발트지역 뿐 아니라 유럽 전체를 보더라도 한국어는 유럽인들이 쉽게 배우기 힘든 언어라는 인식과 고정관념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발트지역이 처해 온 특수한 상황은 한국어를 비롯한 특수 언어를 공부하는 데 여러 가지 이점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유럽과는 달리, 오랜 시간 동안 강대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생긴 독특한 환경, 그리고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 다른 여러 민족들이 모여 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놓인 그들만의 심리적, 사회적 배경이 한국어를 습득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1) 현지인들의 외국어 습득 능력 월등

발트3국은 전체 인구를 합쳐도 서울에 미치지 못하고 전체 면적도 한반도에 불과한 작은 지역이지만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고, 또 그 안에서도 러시아어 사용자들의 수가 많아 모두 4개의 언어가 사용되는 지역이다. 그런 이유로 자국어, 러시아어, 영어 그리고 제4외국어 등 기본적으로 3개 국어 이상을 구사하는 학생들을 만나는 것이 아주 일상적이다. 특히 전체 인구 중에서 40% 정도를 차지하는 러시아 언어문화권 출신의 학생들의 경우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4개 국어 이상의 구사능력을 보이는 학생들도 아주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국어 학습의 경험이 많고 새로운 언어를 학습하는 데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담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이다. 그리고 언어를 이해하는 감각 역시 놀라울 정도로 탁월한 편이다.

2) 해외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 (오랜 지배의 역사와 다양화된 사회)

발트3국은 (리투아니아를 제외하고) 수백 년간 자신들의 국가를 건설하지 못하고 주변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아 살아왔기 때문에 자국 문화와 신념이 타국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나다는 자민족 중심주의나 국수주의적인 면모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타민족과 타문화를 접할 때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덜하며 민족 갈등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은 상당히 적은 편이다. 현지인들, 그리고 다른 사회적, 역사적 배경에서 성장한 러시아계 인구가 같은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차원에서 다른 민족을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어 가려는 태도는 이국의 언어와 문화를 접할 때에도 여실히 적용되는 점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현지에서 태어나 현지 문화적 기반에서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인가, 아니면 현지에서 태어났지만 실제적으로는 러시아 문화를 고수하며 성장한 이민자 출신 구성원인가 하는 점에 따라 상당히 차이를 보이는 점이지만, 출신 민족을 막론하고 발트3국의 역사적 전통과 사회적 특수성을 인정하고 자신이 속해 있는 국가의 자주와 발전을 이루는 것을 최선으로

두는 시민이라면 공유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3. 학문적 이유

한국과 발트국가 간에 여전히 발견하지 못한 학문적 공통분모가 많다. 유럽에서 한국어와 가장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에스토니아와의 언어적 연관성은 아직 학계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고, 산스크리트어가 사용되던 시기에 발전된 리투아니아어의 특성과 구비문학의 가치는 여전히 발굴해야 할 분야이다. 발트지역과 한국 간의 공동분모 발견과 연구는 우리조차 잊고 있던 한국역사의 숨겨진 사실과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지도 모른다.

게다가 한국문학의 세계화가 더욱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제3의 언어가 아닌 한국어를 바로 현지어로 옮길 수 있는 번역전문가가 거의 없다. 현재 리투아니아는 2명의 번역가가 한국문학을 리투아니아어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고, 에스토니아 역시 단 2개의 작품이 한국에서 바로 에스토니아로 번역되는 작업으로 출판되었다. 라트비아는 현재 현지어로 번역된 한국문학작품이 전무하지만 라트비아대학교에 신설된 한국학 대학원 과정의 학생들이 조금씩 번역가로 데뷔를 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재 한국문학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훌륭한 신인들이 문단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만큼 한국어의 표현과 느낌을 적절하게 현지어로 옮길 수 있는 번역가들이 양성되어야 한국문화의 올바른 모습을 외국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와 함께 발트국가의 문화를 홍보하고 공유하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한다. 발트 지역의 문학작품과 문화콘텐츠를 한국에 소개하는 작업은 양국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진정한 교류의 물꼬를 트는 데 아주 중요한 일이다. 아직 한국에서는 발트 언어와 현지 사정을 집중적으로 공부한 전문가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현지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게 한다.

V. 고찰해 봐야할 점

들어가기에 거론한 바대로 이 글은 단지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지역인 발트3국은 물론, 이와 비슷한 처지와 상황에 놓여있는 한국어학의 미개척지에서 한국어학 연구와 교육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그리고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이다.

유럽 내에서도 여전히 한국드라마와 한국가요에 심취해 있지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한국어 학습기관이나 관련학과의 설립을 고대하는 젊은이들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이다. 또 그렇다고 한류의 인기에만 힘입어 한국어교육을 확대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불모지와 같은 환경에서 급속하게 발전을 이룬 한국어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고 또 그 활동이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고찰해야 한다.

1. 한국어학 연구가 반드시 한국어 구사력 향상과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학과 한국어는 떼어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 한국어학 연구를 꼭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연구자에게만 한정하여서는 안 된다. 발트지역에서 관련 지역을 연구하는 현지 석학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국어를 통해서 자체적인 연구를 진행할 정도의 한국어 구사력을 가진 사람은 손에 꼽을 만하다. 그렇다고 그들이 한국어학 연구에 부적절한 것은 전혀 아니다.

실제로 라트비아대학교에서 중국고전문학연구를 오래 지속해온 교수는 필자와 함께 한국어학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거 한문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인이 포착하지 못하는 특징을 포착하여 연구대상으로 삼기 시작했으며, 역시 라트비아대학교 한국어학 연구소 활동에 참여하는 현지 역사학 교수는 그동안 중동, 서남아시아 지역 역사 연구에 집중하였으나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학문적 배경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역사 연구를 시작하였다.

리투아니아의 문학연구가들과 에스토니아의 민속학자, 문학박사들 역시 현지어로 번역된 한국문학이나 영어로 발간된 자료를 통해서 한국 관련 연구를 시작했으며 그를 통해 한국학이 명실공히 주요 학문으로 자리 잡는데 큰 공헌을 한 바 있다. 그러므로 관련 분야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학자들이 한국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남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함은 물론이다.

우리가 모르는 국가들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교에서 활동하는 관련 학자들의 관심을 한국으로 끌어모으고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한국학이 정착하는 초기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2. 빠르고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는 거시적 관점으로 기다려야한다.

위에 명시한 대로 발트3국 내 한국학 연구와 교육은 한국에서 제공되는 지원사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 지원금액도 상당히 크다. 물론 대부분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충당하므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수치적 평가가 가능한 팔목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시급함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돈을 경제적 의미의 투자로 생각하고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한국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진 유능한 학생이 학부과정부터 석사, 박사과정을 거쳐 꾸준히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인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장기적 관점으로 기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의 긴 시기를 거쳐 꾸준하게 지원사업을 이어가야 한다.

3. 인턴십 및 다른 한국 대학들과의 학문적 연계사업 필요

현재 발트3국 대부분의 대학교들과 한국 대학들과의 연계사업은 학생 교류에 집중되어 있다. 젊은 세대의 학생들이 세계무대를 접하고 경험을 쌓는 것 역시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인문학 진흥사업, 교수교환, 공동연구의 확대 등을 통해 현직교수, 연구자,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류의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대학교 내 한국어 교육이 대부분 한 두 교수에 의해서만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는 한국인들을 인턴이나 교환교수 신분으로 파견해 현지 실습이나 관련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는 것도 대안일 수 있겠다.

4. 다양한 관점에서 학문적 공통분모를 이끌어내야 한다(자연, 숲, 치유산업, 남북통일 후 사회통합, 언어연구).

언어와 문화를 중심으로 한 공동연구를 진행하면서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분야로 관심을 넓히는 과정도 필요하다. 아직 한국학이라는 분야의 입지와 의미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으나, 주로 한국의 언어, 역사, 문학 등을 연구하는 차원에 집중되어왔음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관점을 조금 다른 각도로 본다면 한국학의 지평을 더 넓히거나, 아니면 적어도 제한적인 의미 속에서 한국학을 가두어 둘 때보다는 더 폭넓은 연구 가능성을 발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학을 단지 역사와 언어에만 제한하지 말고 실질적인 경제학, 무역학, 농업생명학, 산림학 등의 차원으로 확대시켜 공동연구의 분야를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발트3국은 전 국토의 반이 넘는 지역이 숲으로 덮여 있어 전통적으로 숲과 관련된 연구(민속연구, 인류학적 연구 포함)가 오래 진행되어왔으며 자연친화적 생활을 도시로 끌어오기 위한 연구가 다각도로 진행 중이다. 이는 유럽 전체에서도 꽤 발전된 수준의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고 특히 발트지

역의 목재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현재 한국에서도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삼림치유분야나 녹지관리, 그리고 임업자원개발 같은 곳에서의 학문적 협업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1세기 새로운 한국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발트3국은 좋은 방안을 제공해줄 수 있을지 모른다. 20세기를 주도한 철의 장막을 무너뜨리고 소련의 붕괴를 앞당긴 발트3국은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눈 여겨 보아야할 지역이기도 하다. 소련 시절에도 핀란드를 중심으로 한 스칸디나비아와 서방 지역에서 송출되는 방송을 비교적 자유롭게 볼 수 있었던 에스토니아의 환경을 연구 분석하여 남한의 미디어가 북한동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전혀 다른 정치체제와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수십 년간 고군분투하고 있는 라트비아 사회를 예를 들어 우리에게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전혀 다른 가치와 역사를 가지고 있는 타민족들과의 화합을 이루기 위해 어떤 방도가 강구되어야할지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사례들이 충분하다.

5. 현지에서 오래 터전을 잡고 살아온 한국 연구가들에 대한 보장 확보

현재 한국학 교육연구의 추세는 한국 현지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을 양성하여 해외로 파견하는 것을 장려하는 추세이다. 과거 한국학에 대한 개념도 명확하지 않고 연구도 거의 진행되지 않던 시절에는, 현지에 유학을 떠나 자리를 잡은 한국유학생들이 그곳에서 한국어와 한국학 관련 활동을 시작한 것이 현재 한국학연구가 자리 잡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자 점차 한국학의 수요가 늘고 체계적인 교육방법과 연구방법론이 제시되면서, 현지에서 자리 잡은 기존 연구가들을 배제하고 한국학 전공자와 교육 이수자들을 우선적으로 외국에 파견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

고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절대 환영할 현상이 아니다.

현지의 언어적, 사회적 환경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 내부의 상황만을 비추어 연구와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현지에서 기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없을지도 모른다. 현지의 연구 및 교육환경을 완전히 이해하는 한국 유학생 출신 연구가들과 한국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전문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기획하고 진행해야 최대한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VI. ‘바람아, 불어라’-결론을 대신하여

발트3국이 소련의 치하에서 허덕일 때, 그들의 민족적 심성과 역사적 사명을 잊지 않고 이어올 수 있었던 배경이 수백 년간 지켜온 노래의 전통에 있다고 평가하곤 한다. 특히 내가 살고 있는 라트비아에서는, 공식 국가(國歌)를 부를 수 없던 당시 ‘바람아, 불어라(Pūt, vējiņi)’라는 민요를 국가 대신 부르곤 했다. 리가 만(灣)을 사이에 두고 헤어져 있는 연인들이 만날 수 있도록 순풍이 일어주기를 바라는 내용이다. 발트지역과 한국 역시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을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한류의 바람이 서로의 배를 바다 한가운데로 밀어서 이 민요의 주인공처럼 서로 만나 기쁨의 조우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바람아, 불어라, 내 배를 밀어다오.

Pūt, vējiņi, dzen laiviņu.